

97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해설

<듣기>

1. 빛을 내준 부자가 모래로 짚신을 삼아오라고 할 때, 가난한 집의 아들은 찌를 내어 ‘모래로 새끼를 꼬아 주시면 모래로 짚신을 삼아오겠다.’란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아들의 지혜가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혜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는 것이다. 답②
2. 이 대화에서 ‘여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현대는 정보화 사회로서 개인도 기업도 정보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는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정보화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 대한 투자 문제는 대화 속에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관련이 없다. 답②
3. 학생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국토의 면적을 좁다고 보는 것은 평면적 시각이며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발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중, ④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인구 밀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④
4. 남자의 발언 내용의 핵심은, 대중 음악과 고전 음악은 본령이 다르므로 함께 연주하여 인기를 노리는 방향의 음악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답③
5. 소크라테스는 실천적 진리를 드러낸 것이고, 갈릴레이는 행위로 뒷받침할 필요가 없는 변함없는 진리를 주장한 것이므로 추구하는 진리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답⑤
6. ‘누가 믿건 안 믿건 변함없는 진리’는 바로 객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이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선험적’이란 경험 이전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초월적’이란 현실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답①

<쓰기>

7. 비유와 예시를 적절히 사용한 것은 ②번이다. 유교적 도덕관의 예로 충·효와 같은 전통 도덕관을 들었고, 전통 도덕을 유행이 지난 기성복에 비유하였다. 답②
8. ②는 로봇의 다양한 쓰임을 예시함으로써 ‘로봇은 인간의 복지와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주제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①은 뒷받침 문장이 부분적이며, ③,④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⑤는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어 객관성을 잃고 있다. 답②
9. 서론에서 프로그램이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지적하고, 본론에서는 이러한 편성의 배후에 방송사 경영진들의 영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방송은 공익성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목과 결론을 찾을 수 있다. 답⑤
10.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법’이 불필요함을 주장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과 ㉡이다. ㉠,㉢,㉣은 오히려 그런 법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된다. 답①
11. (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과외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고, (나)에서는 우리 나라가 타국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으로 공교육의 열악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쓰려면 먼저 사교육비의 부담이 높다는 점을 (가)로 뒷받침하고, 그 원인으로 (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답②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옷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도 지니므로 후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옷의 기능을 진술하는 전반부에 주어를 밝히고, 후반부에서 ‘실용성’이란 단어를 ‘표현성’이라는

단어로 고쳐야 한다. 답②

13. ㉠과 ㉡은 ㉢의 전제가 되고, ㉢, ㉣, ㉤은 ㉥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은 ㉠, ㉡의 결론이며, ㉥은 ㉢, ㉣, ㉤의 결론이 된다. 답④

<수필/회곡>

14. (가)는 다양한 시각과 비유적 표현, 또는 삶의 국면에 따라 웃음의 속성을 밝힌 뒤 삶과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가)의 맨 끝 부분의 ‘~기우가 아니었을까’에서 웃음을 인격 완성의 조건으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③

15.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삽화적으로 군데군데 끼워넣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답①

16. ㉣는 ‘웃음이 없다면 인생은 사막이 되었을 것이며, 웃음으로 인하여 인정이 살아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에 구체적 경험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다. 답⑤

17. ㉥는 동양에서는 마음 속의 감정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덕으로 삼아 너무 험프게 웃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다. 그렇더라도 좋은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의 ‘아주머님의 박꽃처럼 웃는 웃음’이다. 답②

<고전산문>

18. (가)는 시간의 순서대로 과장을 섞어 감각을 자극하는 묘사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입을 벌리는 장면을 극대화시켜 부각시키고 있다. 인과 관계란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엮고 있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답④

19. (나)는 집에 값비싼 옷감들이 쌓여 있지만 갓끈을 살 수 없다고 약을 올리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보화를 자랑만 하고 베풀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약만 올리고 있는 것으로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②

20. ㉢은 김인복이 자신의 속셈을 관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장소를 선택한 것이지, 선비를 홀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답⑤

21. ㉣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과장하고 있다. 이에 적절한 말은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하는 침소봉대(針小棒大)와 같은 표현이다.

· 과대망상(誇大妄想):자기의 현실 상태를 과장해서 현실이거니 믿는 생각

· 기고만장(氣高萬丈):일이 뜻대로 잘 될 때 기꺼워하거나, 성을 낼 때 그 기운이 펄펄 나는 일

· 구우일모(九牛一毛):‘많은 것에 섞인 아주 적은 것’의 비유

· 능소능대(能小能大):모든 일에 두루 능함 답⑤

22. 이 글로 볼 때, 김인복은 익살스럽고 과장된 말로 시골 선비를 골탕먹이는 입심 센 익살꾼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①

23. 시골 선비는 김인복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놀림을 당하고 있다. 이는 시골 선비가 김인복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답④

<사회>

24. 이 글의 마지막 문단(오늘의 시민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현실 인식의 변화에 따라 명분론도 함께 변화하는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답④

25. (가)에서 제시한 계층적 명분관은 사회 내에 엄격한 계층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의 주장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계층적 명분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답①

26. ㉠의 의미는 강자가 명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은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내용이다. 답③
27. ㉠은 계층적 명분관에 얽매어 자신이 정해진 계층에 따라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뜻한다. ㉢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뜻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답③
28. ‘체면치레’의 뜻은 ‘남을 대할 때 번듯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꾸미는 일’을 뜻한다. ㉠에서의 문맥적 의미는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겉만 꾸미는 일’이다. 이것을 뜻하는 한자어는 ‘허식(虛飾)’이다. 답⑤
29. ‘큰 나라를 치고 복수’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활을 고쳐야 하는데도, 상투며 넓은 옷소매 등 전쟁을 수행하기에 실용적이지 못한 것들을 고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이 ‘실용적 관점에서 의리론적 명분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적절한 예로 볼 수 있다. 답①

<예술>

30. 필자가 글의 서두에서 생명의 진화나 스포츠, 춤을 언급한 것은 인간의 창조적 예술 행위가 중력이나 인습으로 벗어나려는 욕구였다는 것을 유도해 내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창조적 예술 행위에는 유형, 무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담겨 있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이다. 답⑤
31.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중력과 투쟁’에 대한 것이다. 교통 수단의 발달, 행글라이딩, 홈런, 그네타기 등은 모두 중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연극배우의 몸짓은 언어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력의 한계에 도전과는 동떨어진 예이다. 답①
32. ㉠은 ‘어떤 일에 대하여 전부터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관념이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집(我執)’이다. 답②
33. ㉠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습적 사고이다. 낮익은 그리스도상이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형상에 불과하므로 얼마든지 다르게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습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답①
34. ㉠, ㉡, ㉢, ㉣은 관습적인 것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나, ㉠은 인습적 사고에 의해 굳어진 바로 관습을 의미한다. 답④

<현대소설>

35. 이 글에 나타난 중구 영감의 성격은 예술가적 기질을 갖춘 강직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 ㉢, ㉣,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이러한 중구 영감의 성격을 드러내기 보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답②
36. ‘의장(意匠)’이란 ‘물품의 겉에 아름다운 느낌을 주기 위하여 그 모양·맵시·빛깔, 또는 이들의 조화 따위를 연구하여 응용하는 장식적인 고안’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인 뜻을 모르더라도, 문맥으로 볼 때 ‘의장’이란 말과 대응되는 단어가 ‘견고하기’이다. ‘견고하기’가 내구성을 의미하므로 이와 대응되는 내용은 외적 특성이 와야 한다는 것에서 ‘의장’의 뜻을 추리할 수도 있다. 답④
37. ㉠의 다음 문장에 나오는 ‘용숙의 말머리를 꺾어 버린다.’에서 용숙에 대한 중구 영감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숙의 얼굴이 벌개진다.’는 내용을 통해서 용숙의 요청이 거절되고 있음을 용숙이 자신이 알아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답②
38. 이 글에서 주로 제시된 내용은 중구 영감의 장인다운 성격과 자세이다. 이런 중구 영감

의 성격으로 볼 때, ③의 ‘홍정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답③

39. 중구 영감과 정국주 마누라 사이의 갈등은 장인 정신과 세속적 인간 정신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과 같이 ‘경제적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답①

<과학>

40. 이 글에서 과학 활동과 예술 활동의 성격이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첩되는 부분에 진정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⑤는 자의적으로 이끌어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⑤

41. (라)에서 글의 소재가 ‘과학’에서 ‘예술’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과 ‘예술’이 반대 사례인 것은 아니다. 답④

42. (나)문단의 핵심 내용은 ‘과학적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의 중요성’이다. 이 논지에 비추어 본다면 과학의 발견이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이라는 말은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속에 들어갈 말은 ‘직관적 영감을 과소 평가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④가 가장 적절하다. 답④

43. (다)의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논리적 분석과 추리를 초월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논리적 분석과 추리를 초월한 곳이 ‘직관적 영감’의 세계이며, 이 세계가 바로 ‘언어가 끝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답③

44. 과학적 지식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찾는다. ③은 늦은 밤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침이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시적 상상력과 함께 작품 속에 담겨 있다. 답③

45. ‘치밀(緻密)’과 ‘엄밀(嚴密)’은 서로 바꾸어 써도 지장이 없는 유사 관계의 단어이다. 그러나 ⑤의 ‘분석(分析)’은 ‘복합된 사물을 그 요소나 성질에 따라서 가르는 일’. 그리고 ‘분류’는 ‘사물을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 종류별로 가름’의 뜻으로,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는 단어이다. 답⑤

<사회>

46. (다)문단의 중심 내용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 복지’의 성과와 문제점이다. 답③

47.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개인적, 임상 분야의 전문성
- 사회적, 정부의 정책 및 정책 과정

①,⑤는 거시적 방법론에 해당되고, ②는 미시적 방법론이다. ③에서 ‘이념’은 사회 복지 실천의 전제이고, ‘실천’은 미시적 방법론에 속한다. 답④

48. ㉠,㉡,㉢,㉣은 모두 사회 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 반면, ㉤은 사회 복지를 연구하고 시행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답③

49. (A)는 거시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①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상담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시적 방법론에 해당한다. 답①

50. 이 글은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적 방법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④는 미시적 방법론을 강조한 것으로, 이 글의 논지에 맞지 않으며, ‘사회 체제의 개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답④

<현대시>

51. (가), (나), (다) 세 작품의 시적 모티프는 모두 ‘이별’이다. 세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을 헤어짐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가)는 불교적 구도를 통해, (나)는 끝없는 인연의 확신을 통해, (다)는 기다림의 의지를 통해 승화된 만남을 예비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다.

답④

52. ㉠ ‘한 가지’는 한 부모를 뜻하는 말로 한 핏줄을 타고난 인연을 의미한다. (나)시에서 ‘동아뻘’ 또한 그러한 인연의 끈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답①

53. (나)시는 ‘뉘라카노’라는 시어의 점층적인 반복을 통하여 고조된 시적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각 연마다 말끝을 감추어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상적 대화투의 말과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승’과 ‘저승’이라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삶과 죽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효과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답①

54. (다)시의 <1>에서는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를 ‘사소함’으로 표현함으로써 역설(반어)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②에서도 님을 가슴 깊이 묻고 있으나 ‘잊었노라’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설(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답②

55. <보기>의 내용은 지역이나 민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작품에서 ①, ②, ④, ⑤는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흰옷자라기’는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답③

<언어>

56. 이 글은 우리말을 갖고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글쓴이는 우리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각각 독특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자어의 무조건적인 배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유어와 한자어를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답②

57. ‘마당’은 단어의 일차적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된 경우이다. ㉠의 ‘코’와 ㉡의 ‘왕’은 본래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덧붙여 의미가 확장된 경우이다. 그러나 ㉢의 ‘가르치다’는 어의가 분화된 예이다. 답③

58. ㉠의 문장에서는 높임말인 ‘치아’를 써야 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의 문장 또한 ‘연세’를 써야 하는데 ‘나이’를 씀으로써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답④

59. ‘지식’은 ‘사물에 대한 명료한 의식, 또는 인식으로 얻어져 객관적으로 입증된 성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관적인 인식 작용을 의미하므로 ‘생각’과 결부시킬 수 없다. 답⑤

60. ‘돌가루’가 사라지고 ‘갯길’이 살아남은 현상은 대중의 선택과 호응에 의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도 말이란 다수의 호응을 얻어 함께 어우러져 사용될 때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속에 들어갈 속담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가 적당하다. 답④

<인문>

61.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편적 사상은 추종성 극복이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를 통해 보편적인 사상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바탕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답⑤

62. 이 글에서 ‘웅성거림’은 다양한 사상이 정리되지 않고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사상의 풍부함’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뒤틀림’은 이러한 ‘웅성거림’의 속성과 거리가 멀다. 답③

63. 전반부는 더 깊이 숙련된 사상을 근거로 한 행동일수록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후반부는 인간을 궁극의 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절대적 사상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글쓴이의 사고의 흐름 가운데 들어갈 내용은 ‘최선의 성과를 낳을 사상에 대한 기대’가 된다. 답④

64. ㉠은 사상의 가치를 넓고 깊게 이해하는 기능면에서, ㉡는 사상의 가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답②

65. 이 글은 ‘주관의 독창성과 객관적 수용 가능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 글이므로, 이러한 글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반응은 ⑤라고 할 수 있다. 답⑤